

'51호골' 손흥민, A매치 득점 단독 2위



지난 19일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동점골을 넣은 뒤 '찰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축구, 월드컵 3차 예선 B조 6차전 팔레스타인전 1대1

'5연승 무산'...6경기 무패, B조 선두로 올해 A매치 마무리 손흥민 "부족한 점 메워 100% 만족할 수 있는 자리 만들 것"

홍명보호가 손흥민(토트넘)의 A매치 51호 골에도 팔레스타인과 무승부에 그치며 연승 행진이 4경기에서 끊겼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19일 요르단의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6차전에서 먼저 실점했으나 4분 뒤 손흥민이 이재성의 논스톱 침투 패스를 받아 골 지역 왼쪽으로 파고들며 반대편 골대 구석을 노리는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 골을 책임지면서 팔레스타인과 1-1로 비겼다. 손흥민은 한국 선수 A매치 통산 득점 순위에서 황선홍(60골) 대전하나시티즌 감독을 넘고 단독 2위로 올라섰다. 8골을 더 넣으면 이 부문 1위(58골)인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을 넘어선다. 3차 예선 1차전 홈 경기에서 팔레스타인과 0-0으로 비긴 뒤 4연승을 달린 홍명보호는 '리턴 매치'에서도 승리 사냥에 실패했다. 6경기 무패(4승 2무) 행진은 이어간 홍명보호는 여전히 B조 선두(승점 14) 자리를 지키며 2024년 A매치 일정을 마쳤다. 한 경기를 덜 치러 2위 요르단, 3위 이라크(이상 승점 8)와 격차는 승점 6으로 여전히 크다. 한국은 2025년 3월 A매치 기간 오만, 요르단을 상대로 치를 홈 2연전을 통해 본선행 조기확정에 도전한다. 3차 예선 1-2위는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며, 3-4위는 4차 예선에 진출해 북중미행 경쟁을 이

어간다. 이날 최우수선수로 뽑힌 손흥민은 경기 후 "상대 팀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하는데도 훌륭하게 준비했고, (준비한) 플랜을 경기장에서 잘 보여줬다"고 팔레스타인 선수들에게 엄지를 들었다. 이 경기는 양 팀 선수들에게 2024년의 마지막 A매치였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한해 고생한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라며 "아시아컵부터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2%나 3%, 많게는 10% 정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린 듯하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언젠가 대표팀을 떠나야 할 때 100% 만족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은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대표팀에서 뛴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다"라며 "A매치 51골 등 여러 기록을 세웠지만 지금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와 행동을 더 생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제35회 광주광역시민체육대회' 태권경기가 열린 서구국민체육센터를 찾은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한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건강한 시민과 함께 빛나는 광주

'화합 한마당' 광주시민체육대회 23-24일 열전

'건강한 시민과 함께 빛나는 광주'를 슬로건으로 빛고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한 한마당 축제가 열린다. 광주시체육회는 20일 "23일부터 이틀간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5개 구 체육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를 대표하는 줄넘기와 에어로빅 선수단의 시연 행사로 어울림 한마당 시작을 알린다. 이와 함께 빛고을체육관에는 2025세 계양공선수관대회 홍보를 위한 포토존과 양궁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시민체육진흥센터에서는 건강관리부스를, 협약병원과 한의원에서 의료지원 부스를 운영한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동호인들과 다문화 가족들 모두가 어울리는 시민체육대회가 되고 시민들이 화합하는 체육문화를 만들겠다"며 "광주 시민들께 잠시나마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K리그2 전남이 21일 부산을 상대로 홈에서 준PO 단판승부를 펼친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전남 "부산 잡고 서울 가자"

오늘 안방서 K리그2 준PO 단판승부...비겨도 PO행

1부 리그에서 뛴 게 언제인가 싶은 두 팀, 전남 드래곤즈와 부산 아이파크가 K리그로 가는 길목 초입에서 만났다. 전남과 부산은 21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2 2024 준플레이오프(준PO) 경기를 치른다. 올해 K리그2 정규시즌에서 전남은 승점 57(16승 9무 11패)로 4위, 부산은 승점 56(16승 8무 12패)으로 5위를 차지하고 준PO에 진출해 1부 리그인 K리그 승격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물론 준PO에서 이긴다 해도 산 넘어 산이다. 준PO 승리 팀은 정규시즌 3위 서울 이랜드(승점 58·17승 7무 12패)와 21일 오후 4시30분 서울 목동종합운동장에서 K리그2 플레이오프(PO)를 벌인다. 준PO와 PO는 모두 단판으로 치러지며, 90분 경기 후 무승부 시에는 연장전 없이 정규라운드 순위 상위 팀이 승자가 된다. PO 승리 팀은 마지막으로 K리그1 09위 팀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열리는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이겨야만 내년 1부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다. 두 팀 모두 2부 탈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양 팀의 통산 상대 전적에서는 전남이 38승 21무 31패로 다소 우위에 있다. 전남은 부산을 상대로 K리그2에서 25승 14무 17패, K리그에서 7승 5무 6패 앞섰고, 리그컵에서만 6승 2무 7패로 근소하게 뒤졌다. 그러나 올해는 부산이 1패 뒤 원정에서 2연승했다. 전남은 준PO에서 멈춘 2021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준PO에 나선다. /연합뉴스

'독보적인 활약' 김도영, 연말 시상식 싸늘이 시동거나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 '최고의 선수상' 수상



올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통합 우승을 이끈 김도영(21)이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한은회) 은퇴선수의 날 시상식에서 '최고의 선수상'을 받는다. 한은회는 20일 김도영을 올해 최고의 선수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은회는 매년 연말 은퇴선수가 직접 선정하는 현역과 아마추어 선수를 위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김도영은 올해 정규시즌 38홀런-40도루와 사이클링히트 등 솔솔한 기록을 남겼다. 19세이브로 KBO리그 고졸 신인 데뷔 시즌 최다 세이브를 수확한 김택연(두산 베어스)은 '최고의 신인상'을 받는다. 또한 한은회는 시상식에서 약 15명의 아마추어 선수에게 장학금도 전달한다. 시상식은 다음달 1일 오후 5시 호텔 리베라 청담 베르사이유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승리의 파랑새' 광주FC 지역연고팀 AI페퍼스 응원

내일 도로공사전 허울, 조성권, 변준수, 정지훈 시구

시즌을 마치는 광주FC가 지역 연고 프로구단인 페퍼커피은행 AI페퍼스 배구단 응원에 나선다. 광주는 22일 오후 7시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도드람 2024-2025 V리그 AI페퍼스와 한국도로공사의 홈 경기에서 허울, 조성권, 변준수, 정지훈 등 4명의 선수단이 시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AI페퍼스 선수단의 구단 홈경기 방문 및 시축, 장의 이벤트 참여에 대한 답례로, AI페퍼스의 올 시즌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연고 프로구단 간의 스포츠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광주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구에 나선 허울은 "같은 연고 구단인 AI페퍼스를 항상 응원하고 있었



는데 직접 시구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설렌다"며 "광주FC 팬들도 경기장을 많이 찾아오셔서 AI페퍼스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희중기자